2022 년 12 월 4 일 "예수님의 비유(22) 몸의 등불인 눈"(눅 11:33-36)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타락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 중 하나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어둠을 비추는 빛을 은유한 등불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1] 눈과 몸에 대한 비유

주님은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밝게 잘 비추이면) 온 몸도 밝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인 눈이 성하다는 뜻은 진리와 생명의 빛을 잘 비추는 상태입니다. 비유에서 몸은 육체가 아닌 사람의 내적 외적 속성을 포함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내적 요소는 성품, 안목, 가치관, 신념, 성향, 기질을 포함하며, 외적 요소는 행동방식과 태도, 표현, 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여 온 몸이 밝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사람의 내적 외적 영역을 잘 비추어 그 빛의 도움과 유익을 얻어 창조의 의도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비추어 어둠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은 빛

예수님의 빛 되심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4 "그(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1: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1:9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1:10-11 그런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어둠이며, 빛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선포하십니다.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 하나님과 나와 세상에 대한 무지, 어둠, 혼돈으로부터 벗어나와 창조 때의 생명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눈이 성해서 온 몸이 밝아진 모습이며,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빛은 섬김을 통해 발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몸 값은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지니는데,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사람의 가치를 창조 때 의도하신 가치만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빛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죽으신 것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유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유함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3]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자유함으로 섬기며 선택한 사랑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 지 살펴보아라. 만일 어둡다면 눈이 성하지 않은 것이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밝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 사랑과 자유와 책임이라는 인격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본연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내 안에 심어 주신 가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함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주님은 '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이 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 설교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빛 되심은 어떤 속성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까?